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실효성 떨어져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0일 김강열(58)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해 공공기관장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공직자에 대한 검증 등을 통해 단체장의 임명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인사특위는 이날 오전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광주시에 통보했다.

인사특위는 김 후보자가 30년간 시민단체에서 활동해 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이해도가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도덕성과 경영능력에 대해서는 낙제점을 줬다.

김 후보자가 밝힌 직무수행 계획서가 실현 가능성이 낮고 환경공단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단체 활동 당시 불투명한 회계, 미숙한 행정처리 등은 공단 이사장의 자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시민단체 정관을 위반해 급여를 받아 횡령과 배임 의혹이 제기됐는 데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말 바꾸기를 한 점도 꼬집었다.

광주시의회의 인사청문회는 권고 수준으로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의는 지난 2012년 4월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 청문회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으나, 광주시장이 상위 법령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제소해 무효 판결이 나왔다.

현행 법령이 자치단체장에게 기관 구성원의 임명·위촉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이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임명권에 대한 견제나 제약을 하는 조례 제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의 인사 진흥을 막기 위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돼 광주시와 시의회는 지난 2015년 2월 업무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다.

인사청문 대상은 광주시 산하 8개 기관장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업무협약 수준이라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관련 입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다.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 부적격 판단

권고 수준으로 강제성 없어 요식행위 불과 지적

단체장 인사전횡 막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해야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 인사청문회는 자치단체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법적 효력이 없어 형식적으로 그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자치단체장의 인사 전횡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훈련도 실천처럼 민방위의 날인 20일 오후 화재 대피훈련이 실시된 경기 의왕시 포일지구 LH숲속마을 2단지 아파트에서 119구급대원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

서해해경청, 100억원대 불법 해상유 유통 일당 검거

미세먼지 유발의 주범인 황 함유량이 일반 기름보다 최대 5배나 높은 100억원대의 불법해상유를 유통시킨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일 기름 성분분석표가 없는 무자료 해상유(병커·경유)를 공사현장에 판매한 이모(51·부산)씨와 이 씨에게 무자료 해상유를 공급한 김모(40·부산)씨 등 10여 명을 석유대체연료 사업

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과 울산지역 유류운반선으로부터 불법 해상유 1100만여 l을 받아 전국의 해상공사 현장에 판매해 100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또 공사업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가 유통한 무자료 해상유는 황 함유량이 기준치(0.05% 이하)보다 최대 5배가 높아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으며 이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경은 이 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무자료 해상유 불법 유통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연구단 "포항 지진 지열발전이 유발...자연 발생 아냐"

정부연구단이 20일 '2017년 11월 경북 포항 지진(리히터 규모 5.4)은 인근 지열발전소가 유발했다고 결론지었다.

대한지질학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 지진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정부연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열발전은 땅을 4~5km 파 물을 주입한 뒤 땅의 열로 데워 발생된 증기로 터빈을 돌린다. 물을

고압으로 발사하는 데다가 물을 넣고 빼내는 과정에서 지반이 약해지고 단층에 응력이 쌓여 지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연구단장인 이강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조사 결과 지열발전을 위해 실시한 수리 자극(Hydraulic Stimulation)이 작은 규모의 지진을 유발했다"면서 "그 영향이 시간이 지나면서 본진의 진원 위치에 도달했고, 누적되면 서 포항 지진이 촉발된 것으로 보

인다"고 말했다. 자연 지진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에 앞서 정부연구단의 조사에 함께 참여한 해외조사위원회도 "지열발전을 위해 주입한 고압의 물이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를 활성화해 포항 지진 본진을 촉발했다"고 짚은 바 있다.

포항 지진은 2017년 11월15일 발생했다. 2016년 9월 경북 경주(규모 5.8)에 이어 한국 지진 중 두 번째로 강력했다.

'해임 격분' 자치회장 집서 행패 경비원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해임 통보에 불만을 품고 입주민의 집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협박)로 경비원 A(59)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9시에 광주 서구 한 아파트 단지 주민자치회장의 집에 폐목재를 들고 찾아가 욕설을 하며 10여분 간 소동을 피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해임 통보를 듣고 격분, 분리수거장에서 폐목재를 챙겨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아파트 주민자치회는 단지 내 시설 교체사업을 놓고 A씨와 갈등을 빚었으며, 자치회 의결사항을 문제 삼는 A씨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해임을 결정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조직에 전달 40대 구속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을 금융사기조직에 전달한 40대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0일 전화금융사기로 가로챈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사기)로 A(44)씨를 구속하고 피해금을 인출한 B(36)씨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부산·대구·광주를 돌며 금융사기조직의 지시를 받아 C(52·여)씨 등 피해자 2명에게 가로챈 292만원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다.

B씨는 지난해 19일 광주 동구 모 은행에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2차례에 걸쳐 인출, A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전화·통신 주적이 어려운 메신저 앱 등을 통해 금융사기조직과 연락하며, 1차례 송금할 때마다 10만~20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중고차수출업체를 가장한 금융사기조직으로부터 '차량 구입 시 명의를 빌려주면 수수료 200만~400만원을 주겠다. 차량 구입비는 계좌로 보낼테니 인출해 직원에게 전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인출해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성서 열차·화물차 충돌..70대 중상

20일 오전 8시55분께 보성군 벌교읍 한 철도 건널목에서 무궁화호 열차와 A(70)씨의 1t 화물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A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물차가 건널목을 지나려던 열차를 보고 후진하던 과정에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보성=안구일 기자

순천시 50대 여성 열차 치여 숨겨

순천의 한 철로를 건너던 50대 여성이 열차에 치여 숨졌다.

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9시20분께 순천시 벌림면 경전선 철로 건널목 인근에서 A(50·여)씨가 광주송정역발 순천행 무궁화호 열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주변에서 발견된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신원을 확인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대마초 피우고 역주행 40대 러시아인 입건

대마초를 피우고 인천 도로에서 역주행 운전을 한 40대 러시아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러시아인 A(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인근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17일 오전 0시 57분께 인천 연수구 선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역주행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환각 증세를 보였으며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시약 검사를 실시, 마약 양성 판정이 나와 입건됐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